

국내 최대 인쇄용지 생산업체인 한솔제지는 지난해 말 전 직원들에게 3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원 평균 4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로 알려졌다.

요즘 같은 시기에 성과급이 300%나 지급되었다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회사 측으로서도 이익이 발생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니 경영을 참 잘했다고 할 수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성과급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러나 올해는 매출 부진이 예상되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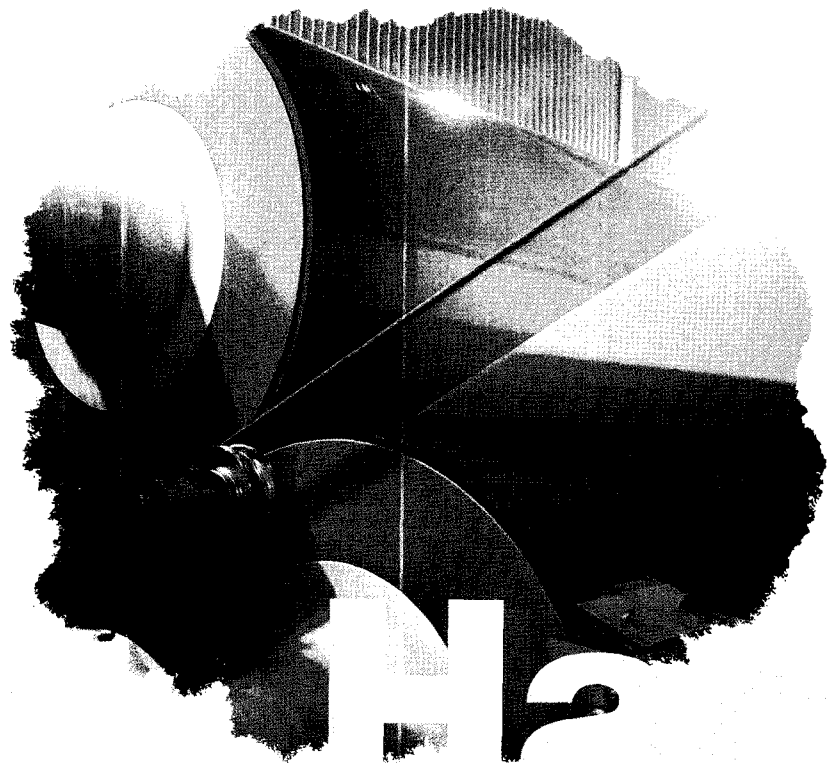
“한솔의 영업이익은 늘어난다”

한솔제지와 관련된 증권가의 분석을 살펴보자. 애널리스트들은 올해도 한솔제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매출은 다소 떨어지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판매는 부진이 예상되지만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은 내리고, 용지 공급가격은 올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제지업체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계속 올린다면 그 피해자는 주 고객인 인쇄업체

한솔제지의 성과급 잔치

지난 연말 전직원에게 300% 지급



와 인쇄물을 소비하는 국민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펼치는 노력은 당연하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주 고객은 쓰러져 가는데 자기들만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시선은 따라워 질수 밖에 없다.

인쇄업체들은 지난해 인쇄용지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고객에게 오른 만큼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하여 여기저기서 도산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솔제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인쇄용지 생산, 공급업체이다. 지난해 이엔페이퍼를 인수해 명실 공히 인쇄용지 분야의 리더 업체로 확고한 위치를 굳혔으며, 우리나라 종이생산·판매·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솔제지의 동향은 관련업계의 주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인쇄용지 가격 당장 내려야

주 고객인 인쇄업체들은 한솔제지의 이번 성과급 잔치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서울 성수동의 S인쇄사 K사장은 “인쇄업체들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니 말문이 막힌다. 인쇄용지 가격이 지난해 지종별로 40% 내외가 올라 인쇄업체들은 재산성이 악화되고 도산업체가 속출하는데 이럴 수 있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중구 인현동의 D인쇄사 J사장은 “지난해 대영인쇄사를 인수해 영세업종인 인쇄업에 진출해 인쇄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가 하면, 종이 값이 많이 올려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니 어이가 없다”며 “당장 종이 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본지는 한솔제지 홍보팀에 취재를 시도했다. 홍보팀의 대답은 이랬다. “남의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던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300%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럼 몇 %냐는 질문에는 그건 알아서 기사를 쓰던지 말든지 하란다.

한솔제지가 거대 기업이고 ‘깡고’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하긴 다른 직원들은 300%를 받았는데 홍보팀만 작게 받아 화가 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성과급 지급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좀 곤란하게 될듯하여 그렇게 답변했는지도 모르겠다.

“상생과 공존” 실천의 자세를

“상생과 공존” 인쇄용지 생산업체들이 인쇄업체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다. 물량감소와 자금난, 원부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쇄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내 몰리고 있는 요즘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인쇄용지 업체들은 ‘상생과 공존’이란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건 아닐까.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다. 상생 :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감. 공존 :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한솔제지 홈페이지 CEO 인사말에서 선우영석 사장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문화를 이루어 나가겠다.”

이번 성과급 잔치를 보면서 선우영석 사장의 인사말이 참 묘한 여운을 준다. 그래도 약자인 인쇄업체들로서야 별수 있겠는가. 선우영석 사장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준다고 했으니...

하지만 만약 올해도 인쇄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여 연말에 또다시 성과급 잔치를 벌일 계획이라면 선우영석 사장님의 홈페이지 인사말을 “...한솔제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직원들의 복지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로 하루빨리 바꾸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

유창준 · 본지 편집국장